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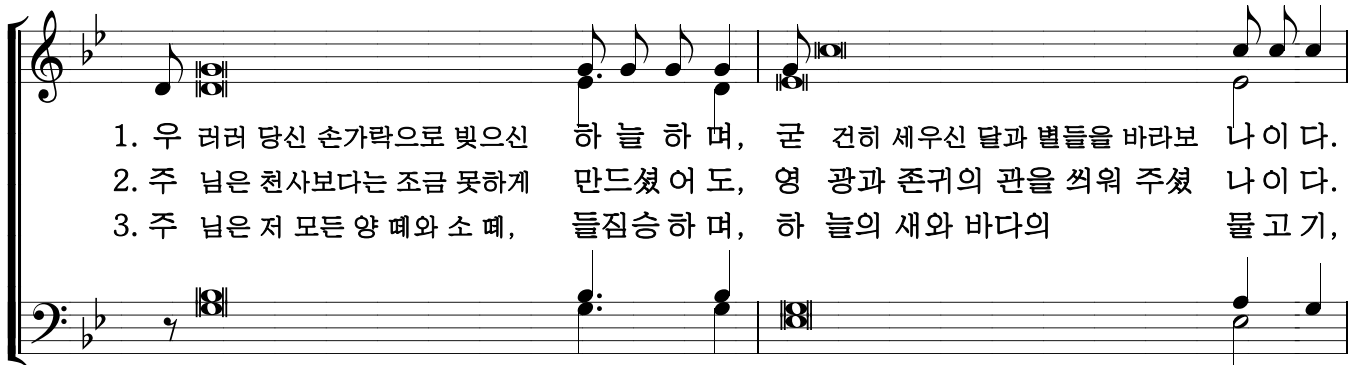
삼위일체 대축일 다해

화답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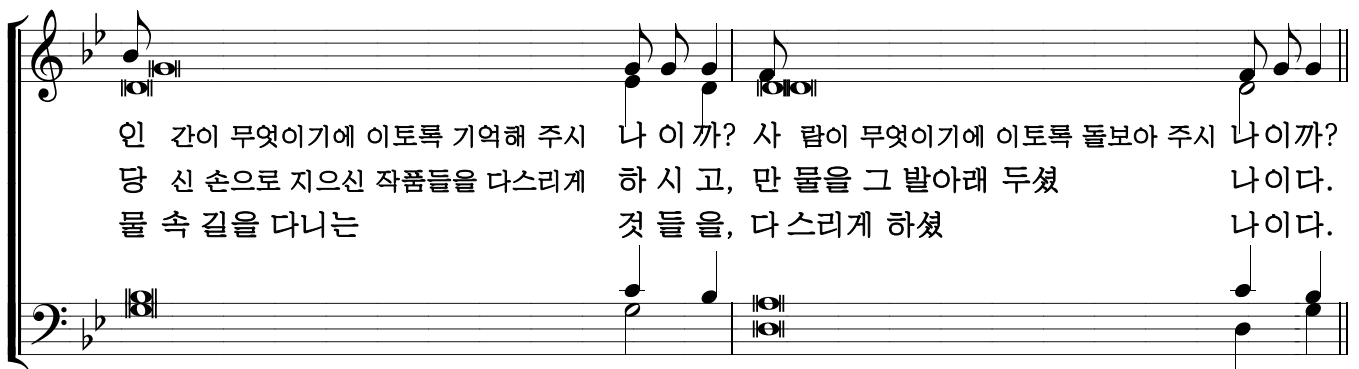
시편 8, 4-5. 6-7. 8-9



(후렴) 주-님, 저희주님, 온 땅에당신이름, 이얼마나 크시옵니 까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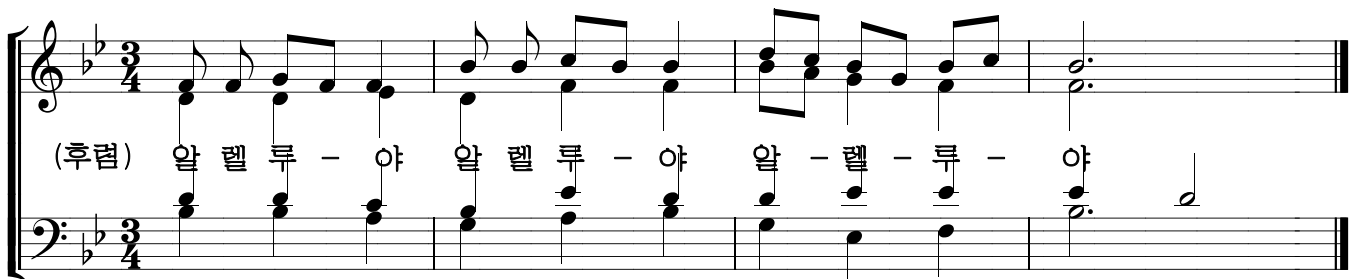


1. 우 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 늘 하 며, 굳 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 나 이 다.
2. 주 님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 어 도, 영 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 나 이 다.
3. 주 님은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, 들짐승 하 며, 하 늘의 새와 바다의 물 고 기,



인 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 나 이 까? 사 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 나 이 까?
당 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 시 고, 만 물을 그 발아래 두셨 나 이 다.
물 속 길을 다니는 것 들 을, 다 스 리 게 하 셧 나 이 다.

알렐루야



(후렴) 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 알 - 렐 - 루 - 야



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 님,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 - 서.
전에도 계셨으며